

# 태음인 당뇨 환자의 열다한소탕가미방 치험 1례

한수지<sup>1</sup> · 안디영<sup>2</sup> · 유준상<sup>3,\*</sup>

<sup>1</sup>삼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대학원생

<sup>2</sup>삼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교실, 대학원생

<sup>3</sup>삼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삼지대학교 한의학연구소, 교수

## Abstract

### A Case Report of Taeumin Patient with Diabetes Treated with Yeoldahansotang-Gamibang

Suzy-Han<sup>1</sup> · Da-Young Ahn<sup>2</sup> · Jun-Sang Yu<sup>3,\*</sup>

<sup>1</sup>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Korean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improvement in Taeumin's dryness-heat symptom of a 54-year-old man diagnosed with type-Ⅱ diabetes mellitus after treated by herbal medicine.

#### Methods

The Taeumin patient took Yuldahansotang-gamibang for 9 months to manage Taeumin's dryness-heat symptom. We examined the changes of Body Mass Index(BMI), Fasting Blood Sugar(FBS), Hemoglobin A1c(HbA1c), and ketouria.

#### Results

Type-Ⅱ diabetes mellitus symptoms in the patient with Taeumin's dryness-heat symptom were thirst, fatigue, and increased body weight. All numerical levels for blood sugar, HbA1c, and ketouria were reduced after taking Yuldahansotang-gamibang.

#### Conclusions

The treatment of the patient with Taeumin's dryness-heat symptom and type-Ⅱ diabetes mellitus with Yuldahansotang-gamibang was efficient,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prove the effect of Yuldahansotang-gamibang for treating such patients.

**Key Words** : Diabetes, Taeumin, Herbal medicine, Sasang Constitution, Yuldabanso-tang, Dryness-heat symptom

## I. 緒論

당뇨병은 가장 흔한 내분비질환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되어 지속되는 대사이상 상태<sup>1</sup>.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중 88.0%가 2형이었으며 당뇨병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86.9%)<sup>2</sup>. 당뇨병의 치료는 고혈당으로 인한 多飮, 多食, 多尿, 疲勞感 등의 증상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 경구용 혈당강하제와 주사제가 활용된다. 그러나 완치가 힘들기 때문에 약물, 식사, 운동요법을 병행하여 혈당을 관리하지만, 관리를 지속하기 어려워 만성적인 혈관 손상을 야기한다<sup>3</sup>.

한의학에서는 당뇨병과 관련된 용어가 『黃帝內經』과 『傷寒論』 등의 의서에서 언급되었고<sup>4</sup>, 四象醫學에서도 少陰人의 食消, 少陽人의 消渴과 太陰人의 燥熱이라는 병명을 사용하였다. 특히 太陰人의 경우 肝熱로 인해 肺의 燥症이 발생하는 燥熱 조문이 제시되었다<sup>5</sup>. 당뇨병에 대한 사상의학 연구 중 11편의 증례보고가 있는데, 이 중 5편은 각각 당뇨병성 신증<sup>6</sup>, 췌양<sup>10</sup> 등이 병발된 경우이고,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1편<sup>11</sup>의 연구를 제외한 5편은 한방 치료 후 증상이 경감된 바 있으나 양약 복용은 지속하였다.

이에 저자는 2형 당뇨로 진단 받고 입마름, 피로감, 체중증가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당뇨 환자를 太陰人 燥熱로 진단했다. 또한 양약 병용 없이 한약과 생활 관리만으로 치료하여 증상뿐 아니라 당뇨병 관련 지표(혈당, 당화혈색소, 소변검사)가 모두 안정화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 II. 證例

1. 환자: 이00(M/54)

2. 진단일: 2021년 6월 23일, 2021년 7월 8일(심화)

3. 치료기간: 2021년 7월 9일 외래 치료 이후  
2022년 4월 20일까지 외래 치료

4. 진단명: 2형 당뇨병(type-II diabetes mellitus),  
太陰人 燥熱

### 5. 주소증

- 1) 입마름
- 2) 피로감
- 3) 체중증가

6. 부증상: 불안

### 7. 과거력

- 1) 고지혈증 2014년 진단받고, 양약 복용 중.
- 2) 고혈압 2014년 진단받고, 양약 복용 중.

8. 사회력: 음주력(3~4회/주), 흡연력(1갑 이하/일),  
직업(사무직)

9.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 10. 현병력

상기 환자는 2021년 6월 23일 건강 검진상 당뇨병 진단과 함께 당뇨약을 권유받았다. 작년부터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외식이 잦던 상황이라 입마름, 피로감, 체중증가 증상이 생겼다. 당뇨 진단 후 당뇨약을 처방받지 않고, 식사량을 줄이며 스스로 생활관리로 혈당을 조절하려 했으나, 이후 체중이 증가 하여 한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해 7월 9일 ○○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외래 진료 후 2022년 4월 20일까지 한약을 복용했다.

## 11. 주요검사소견

검사 항목은 체중과 Body Mass Index(BMI) 및 Fasting Blood Sugar(FBS), Hemoglobin A1c(HbA1c), UA 등 임상병리검사였고, UA 검사만 2021년 09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체중과 BMI상 비만 상태였고, 생화학 검사에서는 FBS가 증가되어 있었다. HbA1c가 8%, 소변검사에선 Ketone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 12. 사상체질진단

### 1) 외형 및 성질

(1) 體形氣像 : 체격이 크고 키 179.9cm이며 체중과 BMI상으로도 전반적인 肌肉이 풍부한 비만 상태였다. 골격이 크고, 복부가 큰 편이며 늑골간도 둔각이었다. 얼굴과 몸에 肌肉이 있는 편으로 전체적으로 허리가 발달하였고, 듬직하다.

(2) 容顏詞氣 : 얼굴이 붉고 둥글며 관골부가 발달하였고, 이마가 직사각형이고 눈 밑은 거무스름하다. 음성이 크고 빠른 속도로 말하나 온화하고 격식을 차린다.

(3) 性質材幹 :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꼼꼼하며, 책 읽음 있고 참을성이 강하여 일을 끝까지 해낸다.

### 2) 素證

(1) 수면 : 양호 일찍 일어난다. 11시부터 5시반까지 수면하며, 중간각성 없다.

(2) 식욕·소화 : 식욕이 항상 좋고, 먹기 좋아하고 많이 먹는다.

(3) 대변 : 1일 1회 이상 배변하며 불편감 없다.

(4) 소변 : 양호하다.

(5) 땀 : 날씨가 더울 때 땀이 많고, 땀을 흘린 후 별 느낌이 없다.

(6) 기타 : 음수량은 보통이며, 더위에 예민하고 찬 물을 좋아한다.

### 3) 現證

(1) 수면 : 1일 평균 5~6시간 수면하며, 1~2회 중간각성한다.

(2) 식욕·소화 : 素證과 동일

Table 1. Improvements of Body Weight, BMI, FBS, HbA1c, and Ketouria after Herbal Medicine Treatment

Date	Body Weight(kg)	BMI (kg/m <sup>2</sup> )	FBS (mg/dl)	Reference value	HbA1c (%)	Reference value	Urinary ketone
21/6/23	87.6	27.1	149	120~139	8.0	(Normal) 4.0~5.6	+
7/09	90.0	27.8	135		8.0		-
8/10	84.0	25.9	127		7.5		++
8/30			112		7.1	(Diabetes) 6.5~	-
9/28	80.0	24.7	109		6.4		
10/11			122		6.4		
11/07	84.6	26.1	125		6.5		
12/15	85.5	26.4	119		6.3		
22/1/18	86.5	26.7	123				
2/13	84.4	26.1	120				
3/26			129				
4/07	81.0	25.0	127				

- (3) 대변: 素證과 동일
- (4) 소변: 주간에 양호하며, 야간뇨는 1~2회 정도이다.
- (5) 한: 素證과 동일
- (6) 기타: 舌質紅口乾, 少苔, 左脈沈細弱, 右脈緊. 추위나 더위 예민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다.

4) 종합적 체질진단: 외형과 성격, 素證 및 병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상체질과 전문의가 太陰人으로 진단하였다.

다. 熱多寒少湯은 『東醫壽世保元』에서 유래한 처방으로 葛根 12g, 黃芩, 蘘本, 8g, 蘿菔子, 桔梗, 升麻, 白芷 4g으로 구성되는데, 본 증례에선 女貞實, 酸棗仁 8g, 桑椹子, 楮實子 6g, 丹蔘, 山藥 4g, 蓮子肉 2g을 加味하였다.(Table 2) 2첩을 3포로 달여서 매 식후 30분 총 1일 2회 분복하였다.(2021년 7월 9일~2022년 4월 20일, 120 cc)

2) 鍼治療: 해당사항 없음

3) 외래 치료 중 복용 약역: 당뇨 관련 양방 약물은 처방되거나 복용하지 않았다.

### III. 治療 및 經過

#### 1. 치료

##### 1) 한약 치료

○○대학교 한방병원 약제실에서 조제한 탕약을 사용하였으며, 복용기간 동안 이상반응은 없었다. 약물의 선택과 관련하여, 외형과 素證 등으로 太陰人 燥熱로 진단하여 熱多寒少湯加味方을 처방하였

##### (1) 고혈압약

- 보령바이오 아스트릭스캡셀 100mg 1T#1 qd
- 플라빅스정 75mg 1T#1 qd
- 디오반필름코팅정40mg 1T#1 qd

##### (2) 고지혈증약

로수젯정10/5mg 1T#1 qd를 7년 동안 적용 후, 2021년 12월 15일 LDL-콜레스테롤 수치 21 mg/dl로 호전되어 크레스토정 10mg 1T#1 qd로 변경하였다.

Table 2. Composition of Yeoldahansotang-Gamibang Taken by the Patient

Medicine	Name	Pharmaceutical Name	Contents(g)
熱多寒少湯	葛根	Radix Puerariae	12
	黃芩	Radix Scutellariae	8
	蘘本	Rhizoma Ligustici	8
	蘿菔子	Semen Raphani	4
	桔梗	Radix Platycodi	4
	升麻	Rhizoma Cimicifugae	4
	白芷	Radix Angelicae Dahuricae	4
加味藥物	女貞實	Fructus Ligustri	8
	酸棗仁	Semen Zizyphi Spinosae	8
	桑椹子	Fructus Mori	6
	楮實子	Fructus Broussonetiae	6
	丹蔘	Radix Salviae	4
	山藥	Rhizoma Dioscoreae	4
	蓮子肉	Semen Nelumbinis	2

## 2. 치료 경과

약 9달간 외래 치료시 한약치료는 太陰人 燥熱로 접근하여 熱多寒少湯加味方을 투여하였다. 체중이 약 10kg 줄면서 BMI도 복용 전에 비해 감소했고, 양약이나 침구치료 없이 HbA1c가 줄은 점에서 熱多寒少湯加味方과 생활 관리로 특이적으로 혈당이 호전됐으며(Fig. 1~3) 입마름, 피로감, 체중증가 등도 개

선됐다.

1) 2021년 6월 23일: 체중 87.6kg, BMI 27.1kg/m<sup>2</sup>

(1) FBS 149 mg/dl, HbA1c 8%

(2) 잦은 회식과 음주로 체중이 2년간 약 10kg 증가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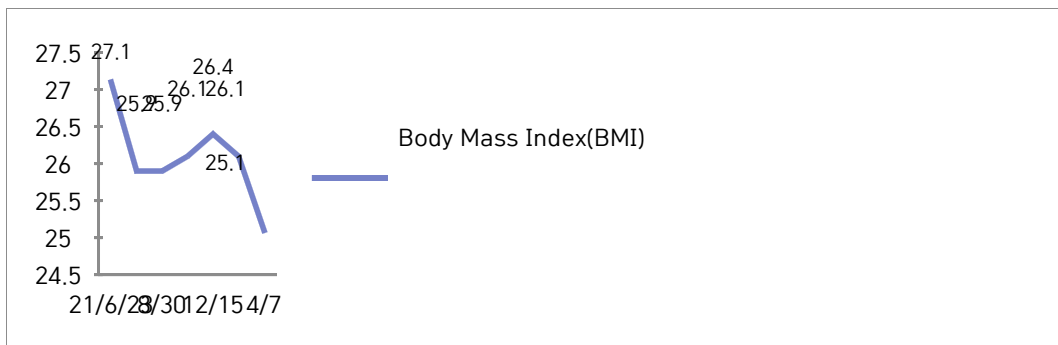


Fig. 1. The effect of Yeoldahansotang-Gamibang on changes of B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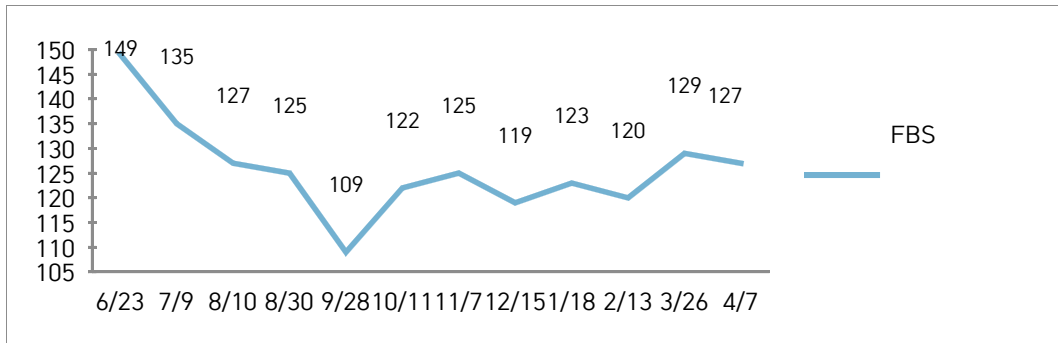


Fig. 2. The effect of Yeoldahansotang-Gamibang on changes of FBS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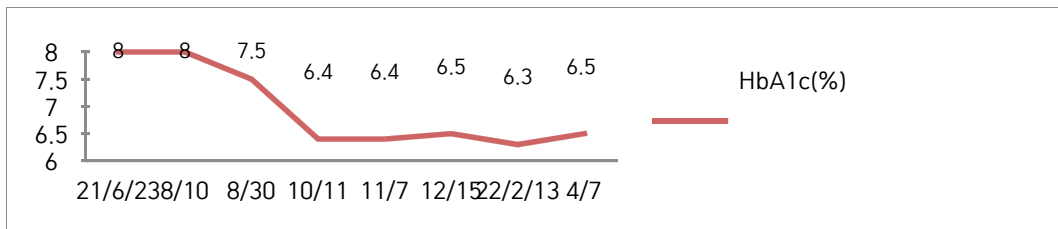


Fig. 3. The effect of Yeoldahansotang-Gamibang on changes in HbA1c level

2) 2021년 7월 9일: 체중 90kg, BMI 27.8kg/m<sup>2</sup>

- (1) FBS 135 mg/dl, 케톤(+), 단백뇨(-)
- (2) 환자 양약에 대한 불안감 있어 한약 복용 및 생활 관리만으로 치료하였다. 11시 안에 취침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인 빵은 피하게 하였다. 소변검사 상 요당이 음성이라, 현미, 검은콩, 두유를 포함한 일반 식단으로 충분히 식사하였고 매일 1시간씩 걷게 했다.
- (3) 당뇨 진단 후 양약은 복용하지 않고, 식사를 줄이며 당뇨에 좋다는 식품(여주즙)으로 본인 자가 조절하고 있었다.

3) 2021년 8월 10일: 체중 84kg, BMI 25.9kg/m<sup>2</sup>

- (1) FBS 127 mg/dl, HbA1c 8%, 케톤(-), 단백뇨(++)
- (2) 소변검사 상 요당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환자 약 1달사이 체중이 약 5kg 감소하여 불안해했다. 국내 여행 때 빵(파배기)을 먹어 음식관리를 못했으나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했다. 잠은 11시~6시반까지 잘 잔다고 하였고, 매일 50분간 걸었다.

## 4) 2021년 8월 30일

- (1) FBS 125 mg/dl, HbA1c 7.5%, 케톤(++), 단백뇨(-)
- (2) 간수치와 컨디션도 좋고 입마름 증상도 느끼지 못하여 건강해진 것을 느낀다고 했으며 숙면한다고 했다. 빵 같은 간식보다는 하루 3끼 중 아침은 양배추, 브로콜리, 아보카도 등 채식 위주로 먹었고, 하루 50분~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였다. 무리할 땐 하루 2만보까지도 걸은 결과 체지방의 분해산물인 케톤체가 검출되었다.

5) 2021년 9월 28일: 체중 80kg, BMI 24.7kg/m<sup>2</sup>

- (1) FBS 109 mg/dl, HbA1c 7.1%, 케톤(-), 단백뇨(-)

- (2) 매일 50분씩 걸었고 주말 등산이나 골프도 4시간씩 하였다.

## 6) 2021년 10월 11일

- (1) FBS 122 mg/dl, HbA1c 6.4%
- (2)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잦은 회식후 ○○의료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심장혈관 스텐트 삽입시술을 1회 받았으며 당뇨약도 권유했으나,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당뇨약만 처방받지 않았다.

## 7) 2021년 11월 7일

- (1) FBS 125 mg/dl, HbA1c 6.4%
- (2) 입마름 소실됐으나, 과한 업무로 피로는 호소하였다. 수면시간은 5~6시간으로 지속됐으나, 밤에는 깨서 1~2번 화장실에 갔다.

8) 2021년 12월 15일: 체중 85.5kg, BMI 26.4kg/m<sup>2</sup>

- (1) FBS 119 mg/dl, HbA1c 6.5%
- (2) 지방 출장 때 빵과 술을 먹은 횟수가 늘었는데, ○○의료원에서 심근경색 관련 재진상시 LDL-콜레스테롤 수치 21 mg/dl로 호전되어 고지혈증 약은 줄이게 됐다.

9) 2022년 4월 7일: 체중 81kg, BMI 25kg/m<sup>2</sup>

- (1) FBS 127 mg/dl, HbA1c 6.5%
- (2) 1월 18일부터 추워서 운동 간격을 격일로 줄여도 3월 26일부터 FBS는 꾸준히 양호하며, 체중 감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무기력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반 증상도 소실됐다. 내원시 대비 약 10kg 감량 상태라 생활 관리 중요성을 주지시킨 후 치료를 종결했다.

#### IV. 考察 및 結論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식생활이 변화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활동량의 감소시키며 당뇨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 국민영양조사에서도 만 30세 이상에서 11.8%의 당뇨병 유병률이 2020년에는 13.6%로 증가했다<sup>2</sup>. 당뇨병의 치료는 HbA1c를 비롯한 혈당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인데, 치료가 쉽지 않아 영양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통해 당뇨병을 관리한다<sup>3</sup>.

한의학에서 消渴은 多飲, 多尿, 多食, 體重減少 등을 호소하는 질병이며, 현대의 당뇨병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病證이다<sup>4</sup>. 『東醫壽世保元』에선 太陰人의 경우 多飲, 多尿, 多渴, 消穀善飢의 증상을 燥熱로 제시하고, '侈樂無厭 慾火外馳 肝熱大盛 肺燥太枯之故也'라며 太陰人 燥熱이 과한 욕망으로 발생한다 했다. 太陰人의 吸聚之氣가 과하여 발생한 熱이 汗出을 동반하지 않아 肌肉에 수액이 편중되어 濕熱을 형성한다<sup>5</sup>.

본 증례에서 입마름, 피로감, 체중증가 등을 호소하는 54세 남환이 2021년 6월 23일 서울 ○○내과의원에서 당뇨로 진단 받고 7월 9일 한의학적 치료를 위해 내원했다. 당시 소변검사상 요당 음성으로 확인됐고, 太陰人 당뇨병 환자를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太陰人 燥熱로 진단하여 양약 병용 없이 한약만으로 치료했다. 특히 (복부)비만과 혈당 상승,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포괄한 대사증후군으로 보고, 비만을 치료하여 고지혈증 약을 줄이기도 했다. 양방에서도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데 한방에서는 비만 및 대사증후군 연구가 다양하고, 특히 四象醫學에선 현재 뿐 아니라 발병 전 素證을 통해 변증하여 예방의학적 장점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환자는 體形氣像, 容貌詞氣, 素證을 종합하여 太陰人으로 진단했다. 안면은 평면적이며 네모지고 덩칙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주먹코처럼 보이며, 귀도 큰 편이다. 또한 복부에 살집이 있고 복부가 전체적으로 발달하여 腰圍之立勢盛壯의 체형기상을 보이

며, 더위에 땀이 잘 나는 것으로 太陰人이라 판단하였다. 특히 素證으로 식욕이 왕성하며 소화가 양호하고, 땀이 많고, 더위에 예민하고 黃赤한 面色에다, 舌紅, 우측맥의 緊脈을 근거로 裏熱病으로 판단하였다. 입마름, 피로감, 체중증가 등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肝熱이 발생하고 心熱이 유발되어 肺熱로 인한 燥症까지 영향을 준 太陰人 燥熱로 진단하여 熱多寒少湯에 몇 가지 약물을 가감하였다. 사상체질에 따라 당뇨병자의 임상증상을 분류한 연구에서도 太陰人에서 당뇨 초기 자각증상은 多飲, 多尿보다 피로감, 갈증이 더 나타나 체질에 따른 증상유행과 부합했다<sup>14</sup>.

환자의 혈당을 보면 FBS가 증가, HbA1c 8%와 UA 검사상 Ketone 양성으로 확인됐으나, 치료 약 4주 후인 2021년 8월 10일 FBS 127 mg/dl, HbA1c 8%와 UA 검사상 Ketone 음성으로 호전되었다. 8월 30일 FBS 125 mg/dl, HbA1c 7.5%로 입마름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나, 하루 2만보까지도 걸은 결과 체지방의 분해산물로 UA 검사상 케톤(++)이 확인되었다. 9월 28일 FBS 109 mg/dl, HbA1c 7.1%로, 매일 50분 걸었고 주말 등산이나 골프도 4시간씩 하여도 UA 검사상 Ketone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치료 약 3달 후인 10월 11일 FBS 122 mg/dl, HbA1c 6.4%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에서도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당뇨약은 처방받지 않았다. 치료 약 4달 후인 11월 7일 FBS 125 mg/dl, HbA1c 6.4%로 입마름 증상도 소실됐으나, 과한 업무로 피로는 호소하였다. 치료 경과 약 5달 1주일 후인 12월 15일 FBS 119 mg/dl, HbA1c 6.5%로, 식이 관리 문제에도 LDL-콜레스테롤 수치 21 mg/dl로 호전되어 고지혈증 약도 줄이게 됐다. 4월 19일 FBS 127 mg/dl, HbA1c 6.5%로 운동을 줄여도 당뇨병 관련 수치 안정되어 치료 종결하되 생활관리 하도록 수면과 운동을 강조하였다.

太陰人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東醫壽世保元』에서 熱多寒少湯에 大黃과 蘘本을 加味하였고, 『東醫四象新編』에선 下消의 경우 熱多寒少湯에 大黃을 加한 清肺瀉肝湯을 처방하였다<sup>5,7</sup>. 肝熱證

이 극성하여 肺燥를 야기함에 葛根이 君藥으로 肝熱을 清熱함으로써 潤肺시키며 生津止渴하고, 主治의 경우 口渴, 고혈압 초기에 肝의 主藥이다<sup>14,15</sup>. 黃芩은 肺熱을 내리면서 收斂肺元하여<sup>16</sup>, 葛根과 黃芩은 肝燥熱을 해소하는 清熱로 기능한다. 熱多寒少湯과 관련한 연구에도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나 당뇨 환자를 양약 투여 없이 치료한 증례보고가 있다<sup>11,17</sup>. 본 증례에선 熱多寒少湯에 女貞實을 가하였는데, 실험 연구에 의하면 소염 작용<sup>18</sup>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뇨병성 혈관질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착안하여 처방했다. 또한 桑椹子是 『東醫寶鑑』<sup>19</sup>과 『方藥合編』<sup>20</sup>에 각각 당뇨병에 좋거나 당뇨병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고, 생리활성기능에 대한 연구로 당뇨 효능<sup>21</sup>이 보고되어있다. 加味 중 楮實子와 丹蔘은 각각 건강기능식품 국내 특허 동향에서 대사질환의 개선효과<sup>22</sup>나 실험 연구로 항고지혈증 효능<sup>23</sup>이 보고되어있다. 加味 중 山藥은 이미 保命之主인 肺의 呼散之氣가 상당히 損傷된 狀態에서 肺 자체의 潤燥를 목적으로 하는 酸棗仁과 병용됐다<sup>14</sup>. 특히 酸棗仁은 虛勞로 생긴 虛煩 不得眠에 쓰이며, 피를 脾臟으로 보내어 잠을 자게 한다<sup>15</sup>. 마지막으로 蓮子肉은 行滯疏通하여 清心작용을 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肝熱, 心熱을 내려주고 肺의 呼散力을 강화하면서 收斂肺元한다.

한편 혈당조절 정도를 알기 위해 당뇨병 관련 수치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봤는데, 삶의 질은 직접적인 지표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 제한적이다. 또한 HbA1c가 정상 범위에 들면 치료를 종결하려 했으나, 직장에서 요직을 지내며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식사관리의 문제로 치료기간이 길어졌고 학위과정도 계획하여 9달후 추가적인 한약처방은 중단했다. 본 증례에서 太陰人의 급격한 스트레스와 당뇨병이 연관되었고, 『東醫壽世保元』에서도 과한 욕심이 太陰人 燥熱證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sup>5</sup>. 이에 太陰人의 당뇨병 관리에 심리적인 안정이 직결되며, 식이요법인 음주, 소금, 면 등의 절제도 만성질환의 관리에 도움될 수 있다 사료된다.

9달이란 장기간 양약 처방이나 침구치료 없이, 熱多寒少湯加味方의 1일 두 번 복용으로 당뇨병 관련 수치를 개선시켰다. 麻黃이 없는 처방과 生活 관리만으로 체중도 90에서 81로 약 10kg 감소했는데, 본 증례만으로 같은 증상과 병증의 치료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음식이나 운동 등 생활관리로도 조절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한약의 효과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한계다. 다만 당뇨병을 四象醫學的 접근만으로 치료한 연구가 부족한 바, 당뇨병에 대한 사상의학 연구 중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1편<sup>11</sup>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당뇨병성 신증<sup>6</sup>, 궤양<sup>7-10</sup> 등이 병발된 경우거나 한방 치료 후 증상 경감된 바 있으나 양약 복용은 지속하였다. 본 증례의 경우 초기 당뇨에 당뇨약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상처방인 熱多寒少湯加味方으로 효능을 보여 의미가 있다. 추후 당뇨병을 대상으로 대조군이 설계된 임상연구를 통하여, 사상체질에 따른 당뇨관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환자들의 부담도 덜길 기대한다.

## V. Reference

1. Fauci A.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medicine. New York: McGraw Hill Education. 2018;19:3405. (Korean)
2.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Diabetes Atlas 8th edition. 2017. Available from: <https://diabetesatlas.org/en/resources/> (English)
3. Meneghini L, Ed. Alexandria, VA. Medical Management of Type 2 Diabetes. 8th ed.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20. (English)
4. Dep. of Internal Medicine(Nephrology & Endocrinology & Rheumatology). All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Korea(compilatio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Nephrology & Endocrinology & Rheumatology). Paju:Koonja Publishing. 2015;



- 50:89-90. (Korean)
5.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Korea(compilation). The revised and enlarged Sasang Constitutional Med. Seoul:Jipmoondang. 2012;306. (Korean)
  6. Hwang MW, Lee TG, Lim JH, Jung YJ, Kim SB, Lee SK et al. A Case Study of Soyangin edematous patient diagnosed as diabetic nephropathy and treated Dojeokgangkitang. *J Sasang Constit Med.* 2003;15(2):129-136. (Korean)
  7. Lee SG, Lee KL, Song JM. A Case Study of One Patient Who Has Diabetic Gangrene in Foot and Finger Due to Diabetes. *J Sasang Constit Med.* 2004;16(3):129-132. (Korean)
  8. Kim YJ, Kim BO, Kim HJ, K wack JJ, Jeon SY, Hong S. A Clinical Report of CVA with Diabetic Foot. *J Int Korean Med.* 2003;24(3): 727-734. (Korean)
  9. Go WS, Kim KS, Lim EC. A Case Study on a patient diagnosed as Diabetic Foot. *J Sasang Constit Med.* 2002;14(2):169-174. (Korean)
  10. Kim HW, Kim JH, Song JM. A Clinical Case Report of Diabetic patient with Foot ulcers. *J Sasang Constit Med.* 2002;14(2):132-137. (Korean)
  11. Lee SU, Hwang JW, Lee WC. A Case Study of Type-II Diabetes Mellitus: Two Patients with Taeumin's Dry-febrile Symptom. *J Int Korean Med.* 2017;38(4):509-519. (Korean) DOI: 10.22246/jikm.2017.38.4.509
  12. KOSIS. Trends in the prevalence of diabetes (based on fasting blood glucose or glycated hemoglobin). 2020.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02&checkFlag=N](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02&checkFlag=N) (Korean)
  13. Kim SH, Kim YH, Hwang MW, Lee JH, Song IB, Koh BH. The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Taeumin's Dry-febrile Symptom.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1):1-14. (Korean)
  14. Jung SI, Kim YW, Jung WG, Kim JW, Kim JI, Lim HJ. A Clinical Study about Diabetes Mellitus Patients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1;13(3): 40-51. (Korean)
  15. Cho HS. The principles and prescription of Sa Sang Medicine. *Jipmoondang.* 2011;408, 429, 449. (Korean)
  16. Lee EH. The Principles of 'Sa Sang Medicine'. *KISS.* 2015;506, 512. (Korean)
  13. Choo J. *Bongyeongsojeung.* Daejeon:Jumin. 2012; 109. (Korean)
  17. Go WS, Kim YS, Lim EC. A Case Report on a patient diagnosed as Diabetic Foot. *J Sasang Constitut Med.* 2002;14(2):169-74. (Korean)
  18. Lee YH, Lim EM. Anti-Inflammatory Effect of *Ligustri Lucidi Fructus* Water Extract in RAW 264.7 Cells Induced by LPS. *J Korean Obstet Gynecol.* 2013;24(4):66-81. (Korean)
  19. *Dong-uibogam.* Bubinpub. 2017. 3584. (Korean)
  20. Hwang DY. *Compilation of Formulas and Medicinals.* Bangyakhappyeon. Seoul: Namsandang. 2007. 237. (Korean)
  21. Konno, K., Ono, H., Nakamura, M., Tateishi, K., Hirayama, C., Tamura, Y. et al. Mulberry latex rich in antidiabetic sugar-mimic alka-loids forces dieting on caterpillars. *roc. Natl. Acad. Sci.* 2006;103:1337-1341. (English)
  22. Song JH, Yang SY, Choi GY, Moon BC. Analysis on the trends of Korean health functional food patent baed on the medicinal plant resources. *Korean Herb. Med. Inf.* 2020;8(1):25-44. (Korean)
  23. Kim HC, Kim YK. Genome-wide analysis on the effects of *Salviae miltiorrhizae Radix* in hyperlipidemic mic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2013;21(2):73-84. (Korean)